

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2년 연속 대통령상

4개 분임조 참가 금상 3팀·은상 1팀 수상 전사적 품질 개선 노력·다양한 지원 결실

한국전력공사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2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0일 "지난 8월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98개 팀의 품질분임조가 본선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전은 안전품질, 빅데이터·AI 등의 분야에 모두 4개 분임조가 참가해 대통령상 금상 3팀, 은상 1팀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금상은 전기설비 고장 복구시간 단축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남서울본부), 전력구 소방 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도 감소(인천본부), AI 기반 공간정보 활용으로 송전 설비공사원가 합중률 상정기간 단축(대구본부) 등 3가지 주제로 수

상했다. 은상은 변전 가스절연 개폐장치 정비공정 개선으로 고장 복구시간 단축(전북본부)으로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은 2022년 은상 3팀, 지난해 은상 3팀, 동상 1팀의 수상 실적에 비해 향상된 실적을 보였다. 한전 관계자는 "이러한 획기적 성과달성은 한전 CEO의 품질경영 방침인 주인 의식, 혁신과 변화 등에 맞춰 꾸준히 시행해 온 전사적 품질 개선활동의 노력과 더불어, 사내 품질

전문가들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한 1:1 코칭 멘토링, 역량강화 워크숍,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제도 도입 등의 품질경영활동의 결과"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무건전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투데이경제



광주신세계, 광주미술관회 3천만원 전달

광주신세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했다. 광주신세계는 10일 "김영희 광주미술관회 이사장, 이동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광주시립미술관회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광주신세계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예술 공익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이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본관 1층에 신세계갤러리 운영하고 이이남 작가 등 신진작가들을 발굴하는 신세계 미술제 개최, 광주비엔날레 후원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지역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미술관회와 광주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광주학생 미술대전'을 후원하고 이후 광주신세계갤러리에 수상작을 전시했다. 또한 본관 1층 광장에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을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은솔기자



롯데백화점, 유기 그릇 '수타미'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0일 "지난 8월 8층 리빙매장에 신규 입점한 유기 그릇 전문 브랜드 '수타미'에서 유기 밥그릇, 국그릇과 수저 등 다양한 찬기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7호 이형근 유기장인의 옥바리, 옥식기 등과 자개 미니 가구까지 전통의 멋이 가득 담긴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추석 명절 특집으로 2인 반상기, 수저, 팔사기 등의 제품을 오는 30일까지 최대 60%까지 할인하며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은솔기자

"응급상황 신속 지원"...광주TP, AI 앰블런스 사업 기술 시연회

AI시스템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기대

(재)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는 10일 "전날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AI앰블런스 적용 시범사업(이하 AI앰블런스 사업)의 기술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앰블런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설명, 응급환자의 발생에서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이송시나리오 및 119 구급차 장비 실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시(AI반도체과, 광주소방본부)를 비롯 사업운영기관인 연세대 산학협력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 광주TP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썼다. AI앰블런스 사업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광주TP가 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음성인식으로 응급환자의 질환을 파악하고 병원을 추천해주는 AI 장비를 탑재한 시범용 구급차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정돼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역 내 ▲AI앰블런스 보급 ▲AI진단술루션 보급 ▲라이프로그 건강

관리소 개소·운영 ▲의료 인재양성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의료 APP 구축 ▲의료데

이터 활용 기업지원사업 등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 및 선진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AI앰블런스 사업은 광주소방본부 관할 119 구급차와 의료기관에 AI시스템을 구축, 병원과 구급차 간 현장 상황을 공유해 중증도를 분류하고 응급실 포화도 분석에 따라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에는 영상 및 음성 수집장치가 탑재돼 구급대원은 자동으로 기록되는 구급일지 덕분에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구급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착 전 최적의 치료계획이 준비돼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광주 AI앰블런스 사업은 소방청에서 올해 2월 전국 구급차에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인 스마트119시스템과 pre-KTAS와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집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AI앰블런스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최적의 응급대응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해양에너지, 일자리창출 유공 총리 표창



오광호 ESG경영본부장 수상

㈜해양에너지는 10일 "최근 오광호 ESG경영본부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한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

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 본부장은 경영마케팅, 고객관리 및 HR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하고, 회사의

발전과 무쟁의·무분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즐겁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ESG경영본부장)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

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 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의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는 국내투자자들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펀드로 ESG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은솔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